

지역 소식통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정읍시, 2774에 발급

정읍시가 올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1차 신청접수를 마치고 발급을 개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20일 생생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2774명을 확정했다. 확정된 대상자는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산태인농협 등 25개소의 지역농협에서 생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관련해 진여분에 대해서는 내달 1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추가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 초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농업에 종사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 25세 이상~만 75세 미만(단, 결혼한 자는 만 20세 이상~만 24세)이다.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m²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 1만 원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군민현장’ 바꾼다

고창군이 군민의 긍지와 자질을 담은 ‘고창군 군민현장’을 30여년 만에 새롭게 바꾼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고창군 군민현장 개정추진위원회 출범회의를 열고 현장 개정을 위한 첫발을 뒀다. 앞서 고창군민 현장은 1970년 제정됐고, 지난 1991년 1차 개정돼 ‘밝은 사회기록’, ‘부를 쌓아 국민복 기여 등 5개항의 다짐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현장은 30여년이 지나면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군은 한자사용 자체 등 언어표현을 순화하고, 한반도 첫수도의 위상과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희망찬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바꿀 계획이다. 특히 군민현장은 자율적인 실천규범임을 감안해 현장 초안 작성에 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천사 히어로즈’ 준공 눈앞

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 가족단위 복합 놀이시설 언론인 현장 설명회... ‘체험·힐링 토탈관광 기반구축’

정읍시가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조성 중인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놀이시설 ‘천사 히어로즈’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천사 히어로즈’는 부전동 1004번지에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49억2000만원, 건축면적은 2280㎡(약 690평) 규모다. 기존의 놀이터와 달리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 시설과 함께 사계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곳에는 실내형 복합놀이를 테마로

가족 단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타워클라이밍, 스크린 야구장 트램폴린 등 20종 50여 개의 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다. 놀이 활동기와 안전요원도 배치되고, 학부모와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편의 공간도 만들어졌다. 시는 이 시설을 기반으로 내장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가족 단위 체험과 힐링 토탈관광 기반을 구축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곳을 끝나무 체험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읍시가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조성 중인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놀이시설 ‘천사 히어로즈’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외관련해 시는 27일 ‘천사 히어로즈’ 복합놀이 시설의 개장을 앞두고 지역 언론인 20여 명을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현장 설명회는 최준양 관광과장의 사업개요 등 현장 설명을 시작으로 시설물 투어와 체험으로 진행됐다. 최준양 과장은 “더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가 아낌차게 추진한 만큼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기대한다” 말했다. 언론인들은 시설 내·외부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둘러보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날카롭게 살폈다.

또 타워클라이밍과 스크린 사격, 스크린 야구 등을 직접 체험해보며 아이들의 시선에서 놀이문화 관련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유진섭 시장은 “천사 히어로즈는 국내 유일의 희소성과 선호도 높은 어린이·청소년 위주의 관광시설”이라며 “가족 단위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읍에 놀이 시설이 문을 열면 도시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사 히어로즈는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확보한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조성된 관광시설이다.

2019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0년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26일 4·15총선을 통해 4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면담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고 4선 의원에 당선된 홍영표 의원 사무실 등 지역 출신과 인호영 의원 등 전라북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

“현안 해결” 지역 정치권 스킨십 강화

고창군, 국회의원 등 잇단 면담

고창군이 군 현안사항을 비롯해 국가예산 핵심사업 설명하기 위해 국회의원 면담을 시작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26일 4·15 총선을 통해 4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면담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고 4선 의원에 당선된 홍영표 의원 사무실 등 지역 출신과 인호영 의원 등 전라북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

유 군수는 먼저, 원전폐지에 따른 교정 성격으로 납세지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지역지원시설세)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 등 제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렸으나 아직 현실화하지 못한 사업들을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고 공론화하는데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내년도 확보예산인 핵심국가예산으로 고창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공유플랫폼 구축사업(30억원)과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50억원), 제차 연안정비사업(370억원) 등 핵심적으로 예산확보 활동 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산적한 많은 현안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울려야 하며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국회와 함께하는 협력행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마을로 찾아가는 ‘긴급재난지원금’ 호평

부안군, 집중 접수창구 설치 마을별 70~97% 지급률 기록

부안군이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군민 1인당 10만원 규모의 부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던 가운데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직접 마을로 찾아가 지급하는 창구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 실제 군은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지난 26일부터 관내 500여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신속확인 후 지급하고 있으며 마을별로 70~97% 이상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급 첫날인 지난 26일 전

체 군민 5만 2522명 중 31%인 1만 6438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군은 관내 13개 읍면을 마을별로 세분화해 찾아가는 집중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부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집중 지급기간(5월 26일~6월 3일)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은 이 시기가 봄철 영농기로 주민들이 바쁜 시기임을 감안해 전 직원이 직접 마을까지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집중접수창구 운영기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은 오는 6월 4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권익현 군수도 27일 부안읍 집중접수창구를 찾아 현장행정을 펼쳤다.

권익현 군수는 “지급 첫날 상당히 많은 군민들에게 부안형 긴급재난지



도담 1

원금이 지급됐다”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순조롭게 군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부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마을에서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오는 6월4일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다”며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동학정신 계승, 정읍이 앞장”

정읍시, 입암면 왕심마을에 ‘기해농민봉기’ 기념 조형물 설치

정읍시가 입암면 왕심마을에 ‘기해농민봉기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고 27일 제막식을 가졌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소에 따르면 ‘기해농민봉기’는 1899년 5월 27일(음 4월 18일) 왕심마을에서 별왜(別 왜), 법안(法 羊), 보국인민(輔國安民)을 기치로 일어난 농민봉기다.

중심인물이 모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고 동학농민혁명의 구호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기리기 위해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기해농민봉기 12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학술조사를 거쳐 이번에 왕심마을에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됐다.

조형물 제작은 서울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윤성 작가가 맡았다.

더불어 이번 기념 조형물 설치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해 조형물 건립에 힘을 보태며 그 가치가 더욱 빛났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망령으로서 지나치거나 잊혀지거나 사라져가는 역사를 발굴해 혁명정신 계승과 다양한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